

PB1)

## 군산 산단의 PM<sub>10</sub> 중 금속성분과 이온성분의 크기 분포 Size Distribution of Metals and Ionic Species of PM<sub>10</sub> in Industrial Complex of Gunsan(Korea)

김 성 천

군산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부

### 1. 서 론

현재 우리나라 입자상물질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공기역학적 직경 10  $\mu\text{m}$  이하인 PM<sub>10</sub> 기준이 연평균 70  $\mu\text{g}/\text{m}^3$  및 일평균 150  $\mu\text{g}/\text{m}^3$ 이다. 그러나 영국의 PM<sub>10</sub> 기준은 24시간 평균 50  $\mu\text{g}/\text{m}^3$ 로 강화하여 입자상물질에 의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(EPAQS, 1995). 분진은 공기역학적 직경 2.5  $\mu\text{m}$ 를 기준으로 미세입자와 거대입자로 나누어지는 쌍극분포의 형태(Whitby *et al.*, 1972)를 나타내며, 분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를 통해 10  $\mu\text{m}$  이하의 입자가 호흡성 분진으로 인체에 더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(Emison, 1988). 그러나 아직까지도 분진의 입경분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며, 특히 미세입자에 대한 효율적인 제어가 어려운 실정이다.

본 연구에서는 분진의 입경별 농도 포집이 가능한 9단 Cascade Impactor (Andersen sampler: Model Mark II)를 사용하여 분진의 입경별 농도 및 분진 중 Cd, Cr, Fe, Pb 등의 중금속과 암모니아, 인산 등 이온 성분의 입경별 농도 분포와 계절별 분진 및 중금속과 이온의 농도변화를 비교 검토하였다.

### 2. 실험 및 연구방법

본 연구에서 시료 포집은 2001년 10월, 12월,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9개월 동안 시행하였고, 대기 중 부유분진의 포집은 Cascade Impactor(Andersen Non-viable ambient particle sizing sampler: Model Mark II)를 사용하였고, Cascade Impactor는 low-volume air sampler(LVAS)로서 유속은 28.3 L/min으로 고정되었으며, 여지는 미량원소의 분석에 적합한 직경 81 mm, pore 크기 0.45  $\mu\text{m}$ 의 유리섬유여지(glass fiber filter: 미국 Gelman Science사: Model 934-AH)를 사용했다. 본 연구에 사용한 포집기 각 단의 기공(pore) 크기는 F단부터 0단까지 점진적으로 커져 F단은 마지막 단으로 backup 필터에는 공기역학적 직경이 0.43  $\mu\text{m}$ 보다 작은 입자가 포집되며, 7단은 0.43~0.65  $\mu\text{m}$ , 6단은 0.65~1.1  $\mu\text{m}$ , 5단은 1.1~2.1  $\mu\text{m}$ , 4단은 2.1~3.3  $\mu\text{m}$ , 3단은 3.3~4.7  $\mu\text{m}$ , 2단은 4.7~5.8  $\mu\text{m}$ , 1단은 5.8~9.0  $\mu\text{m}$ , 0단은 9.0~10.0  $\mu\text{m}$ 인 입자가 포집된다.

중금속의 분석은 AAS(Varian spectRAA 220)를 이용해 4개 중금속 원소 즉, Pb, Fe, Cd, Cr를 분석했고, 이온성분의 분석은 막여지(pore size 0.45  $\mu\text{m}$ )를 이용해 여과한 후 PO<sub>4</sub><sup>3-</sup>, NH<sub>4</sub><sup>+</sup>의 이온성분을 UV(U/V Spectrophotometer, Model Smart 325)를 이용한 흡광광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, Na<sup>+</sup>, K<sup>+</sup>, Mg<sup>2+</sup>는 A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, NO<sub>3</sub><sup>-</sup>, SO<sub>4</sub><sup>2-</sup>, Cl<sup>-</sup>의 이온성분은 IC(Dionex, DX -500)을 이용해 분석하였다.

### 3. 결과 및 고찰

1. PM<sub>10</sub>의 질량 분율은 4계절 모두 2.1~3.1  $\mu\text{m}$ 를 기준으로 미세입자와 거대입자로 나뉘어지는 쌍극분포(bimodal distribution)를 보였다(Fig. 1).

2. 총 량에 대한 미세입자 영역의 비율은 PM<sub>10</sub>, Cr, Fe의 비율은 각각 0.39, 0.49, 0.26으로 거대입자 영역에 많은 양이 존재해 자연적인 배출원에서 기인되었고, Cd, Pb의 비율은 0.86, 0.64으로 미세입자 영역에 많은 양이 존재해 인위적인 배출원에서 기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.

3. 계절별 분진의 입경별 기하평균과 기하표준편차를 구한 결과, 봄철에는  $dg = 4.2 \mu\text{m}$ ,  $\sigma_g = 4.7 \mu\text{m}$ , 여름철에는  $dg = 2.2 \mu\text{m}$ ,  $\sigma_g = 4.4 \mu\text{m}$ , 가을철에는  $dg = 2.0 \mu\text{m}$ ,  $\sigma_g = 3.3 \mu\text{m}$ , 그리고 겨울철에는  $dg = 2.9 \mu\text{m}$ ,  $\sigma_g = 3.87 \mu\text{m}$ 으로 나타나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입경이 작은 입자들이 포집됨을 알 수 있

었다.

4. PM<sub>10</sub> 중 Cl<sup>-</sup>, NO<sub>3</sub><sup>-</sup>, SO<sub>4</sub><sup>2-</sup> 그리고 PO<sub>4</sub><sup>3-</sup>의 평균 농도는 각각 1.88  $\mu\text{g}/\text{m}^3$ , 7.29  $\mu\text{g}/\text{m}^3$ , 26.38  $\mu\text{g}/\text{m}^3$  그리고 211.93  $\text{ng}/\text{m}^3$ 으로 조사되었고, NH<sub>4</sub><sup>+</sup>, Na<sup>+</sup>, Mg<sup>2+</sup> 그리고 K<sup>+</sup>의 평균농도는 각각 0.69  $\mu\text{g}/\text{m}^3$ , 19.70  $\mu\text{g}/\text{m}^3$ , 0.51  $\mu\text{g}/\text{m}^3$  그리고 0.90  $\mu\text{g}/\text{m}^3$ 으로 조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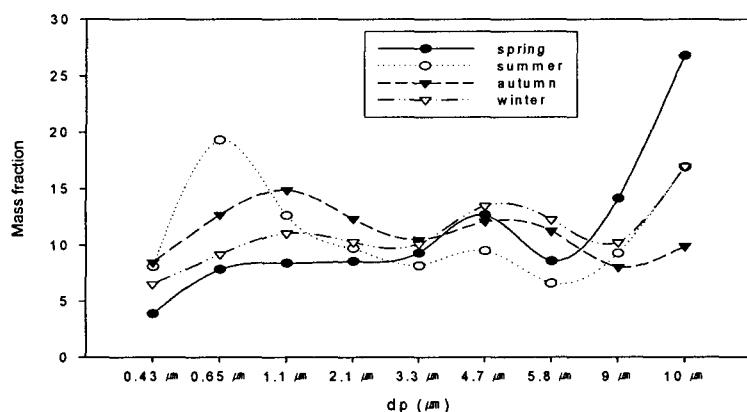


Fig. 1. The mass fraction by aerodynamic diameter in PM<sub>10</sub>.

#### 참 고 문 헌

- Ackermann-Liebrich, U.A., Leuenberger, Ph., Schwartz, J., Schindler, Ch., Monn Ch, et al. and SAPALDIA-team (1997) Lung function and long term exposure to air pollutants in Switzerland. Am. J. Respir. Crit. Care. Med. 155. 122~129.  
Pryor SC, Simpson RW, Guise-Bagley L, Hoff R, Saklyama S, Steyn D. (1997) Visibility and aerosol composition in the Fraser Valley during REVEAL. JAWMA, 41 : 147-156.